

◇비소세포폐암에 있어 신생 혈관 생성 정도의 측정이 예후 판정에 미치는 영향

김성철, 김진국, 김 관민, 심 영목, 장 인식, 박 승준, 차 혜경, 한 정호

삼성서울병원 흉부외과, 진단병리과

**배경 및 목적** : 신생 혈관 생성은 암의 발달과 전이에 있어 필요 불가결한 것으로 신생 혈관 생성 정도가 암의 예후 판정에 유용할 수 있음이 주장되어 왔다. 이에 저자들은 비소세포폐암의 예후 판정에 있어 신생 혈관 생성 정도의 판정의 유용성을 판단하고자 하였다.

**방법** : 1996년 10월부터 1997년 6월까지 삼성 서울 병원 흉부외과에서 절제된 107명의 폐암 환자의 종괴에 있어서의 신생 혈관의 발생 정도를 CD-31 항체를 이용하여 염색후 이를 현미경하에서 계측하였으며 현미경 배율 100배 시야당 80개 이상이 관찰될 때 의미있게 증가되었다고 판단하였다. 계측 결과는 1998년 8월말까지의 추적 관찰 결과와 비교 분석하였다.

**결과** : 추적 기간중 38명의 환자에서 종양의 재발 및 전이의 소견이 관찰되었다. 그 분포는, 신생 혈관 생성이 의미있게 증가되지 않았다고 판단된 21명의 환자중에는 5명 [5/21, 24%]에서, 반면에, 신생 혈관 생성이 증가한 86명의 환자중 33명 [33/86, 38%]에서 재발의 소견을 발견할 수 있어 두 군간에 의미있는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[ $p < 0.05$ ].

**결론** : 비소세포폐암에 있어 신생 혈관 생성 정도는 예후에 영향을 끼치며 이를 이용한 예후 판정 및 치료제의 개발의 가능하리라고 사료된다.

책임저자: 김진국(삼성서울병원 흉부외과) 발표자: 김성철(삼성서울병원 흉부외과)